

19. 일사병과 열사병의 예방과 치료방법은?

방목이나 운동장에서 뜨거운 태양 직사광선을 뒷머리와 목 부분에 직접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가 직접 햇빛을 쬐이지 않도록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그늘막은 동서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면 그늘의 크기가 길어져 효과가 크다.

열사병은 주위 환경의 온도와 습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에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소가 체온의 발산을 하지 못해 발생하므로 축사 내에 습도가 높지 않도록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일사병이나 열사병의 증상은 원기가 없으며, 체온이 40°C 이상으로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며 혀를 내민 채 호흡을 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소는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머리 뒤편에 냉수를 지속적으로 뿌려서 체온을 내려가게 하고 해열제, 링거액 등에 의한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